“내년 비엔날레는 판소리 통해 ‘공간’ 주제 구현”

니콜라 부리오 감독 기자회견
3가지 음운현상 섹션 본전시
기후 등 변화한 공간에 대한 고민도

“판소리에 대해 알게 되면서 흥미로운 예술 장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다. 뭐랄까 미니멀한 느낌, 서사적인 느낌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전통 장르라는 점이 끌렸다.”

광주비엔날레는 25일 오후 광주 라마다 플라자 충장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제15일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주제와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한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15회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전라도 고유 예술 형식이기도 한 판소리를 전 세계로 울려퍼지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는 15회 주제를 ‘판소리-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정한 것은 한국 전통 음악 형식인 판소리를 은유로 해 인류의 보편적 현안인 공간을 탐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 아티스트들이 작곡한 시각적 교향곡 형태로 판소리 본질을 드러내면서 음악적 은유로 구조화된 오페라 형태를 취할 것”이라며 “전시는 광주 곳곳을 새로운 공간적 조건과 인류세 현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의 말은 한국적인 것에서 울려 퍼지는 세계 보편성의 미학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 태동한 판소리는 한국 고유의 음악 형식이자 예술 장르로 ‘공공장소의 소리’, ‘서민의 목소리’를 뜻한다. 소리가 펼쳐지는 마당이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것에서 보듯 판소리는 열려 있는 공간을 매개로 창자와 고수, 청자 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그는 “한국의 판소리를 통해 공감이 가능한 동시대 공간을 탐색해보고자 한다”며 “기후 위기로 대변되는 인류세 등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가장 큰 현안은 결국 공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

니콜라 부리오 감독의 말은 언급한 대로 공간의 개념이 일상을 넘어 사회정치적 담론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페미니즘과 탈식민 등 이슈 외에도 일반 시민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권리부터 원주민에게 할당된 보호구역 등 공간 배분과 같은 사회정치학의 담론까지 포괄한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이 시대 왜 공간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간은 어느 존재든 예외없이 그것이 집단이든 개인이든 모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년 인류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이는 결국 공간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 외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사막화 등은 인류와 공간의 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부분으로 우리의 감각과 지각에 대한 심도 깊은 발화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3개 섹션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전시는 공간을 세 가지 음운 현상에 해당하는 섹션으로 구성하고 관객들은 서사를 따라 감상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여정은 포화된 행성에서부터 더 큰 세상인 우주와 분자 세계에 대한 탐색으로까지 이어진다.

먼저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라르센 효과’를 제시했다.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 라르센 효과는 두 개의 음향 방출기 또는 수신기가 서로 가까울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이 섹션은 모든 것이 연속적이고 전염성이 있거나 반향실(echo chamber)아 된 지구를 보여준다”며 “인간의 여러 활동으로 포화상태가 된 이곳에서 인간과 인간, 종과 종 사이의 관계는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섹션은 ‘폴리포니’라는 소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인류학자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 지 따스뜨루의 말을 인용하며 “산업화된 국가들은 다른 생명체들을 환경의 극히 일부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오페라 공연에서 가수 한 명만 빼고 나머지 음악가들의 소리를 전부 소거해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세 번째 섹션의 소주제는 ‘태초의 소리’라고 제시했다. 중국의 ‘치’, 불교의 ‘옴’, 빅뱅의 첫 번째 소음은 모두 태초의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 섹션에서는 우주와 분자 세계 등 광대한 세계를 탐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일상적 공간이 지닌 힘과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음악과 음향 프로젝트를 다채롭게 진행한다.

그는 “공공장소, 대안 예술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소리와 시각 요소를 혼합한 예술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라며 “예술이라는 공간은 현실을 재구성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자 사회적 삶과 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인사말에서 “창설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무엇보다 인류 문명사에 전위적인 담론을 발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전시의 방향 또한 인류세라는 전환의 시대에 지구상 공간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 지 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랩’이 진행하는 문턱이 7월~12월까지 동구 보헤미안소극장에서 열린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제공〉

‘문턱’ 낮춘 특별한 공연 보러오세요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보헤미안 소극장, 7월부터 공연

관객들이 뮤지션을 지근거리에서 마주한다면 어떨까? 그것도 음료 한 잔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 ‘문턱’은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과 보헤미안 소극장이 2023 공연문화활성화 기획시리즈를 통해 공동으로 만들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두 번째 금요일(오후 8시)에 광주 보헤미안 소극장.

먼저 오는 14일에는 ‘해금이 흐르는 노래’를 주제로 해금예술가 김단비밴드 래인이 공연의 서막을 연다. ‘사랑은 늘 도망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드라마 OST들이 해금 선율을 통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나랩은 유튜브 홍보영상에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나 아이유의 ‘드라마’ 같은 익숙한 노래를 연주한다.(정확한 레퍼토리는 당일 공개할 계획)

이어 8월 11일에는 세 여성국악인으로 꾸려진 ‘보통 아닌 그녀들’의 ‘전체관람가(歌)’ 공연, 9월 8일에는 포크뮤지션 조재희, 해금예술가 김단비의 무대 ‘이방인’이 준비돼 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국악 하는 재즈피아니스트 정관영과 핸드팬 등 다양한 이색 타악기를 연주하는 현청화가 ‘NINANO’라는 제목으로 콜라보 무대를 꾸린다.

11월 10일은 젊은 국악인 장유진과 신예 작곡가 최경아가 ‘담다’라는 주제로 공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 8일에는 나랩이 ‘문턱’이라는 제목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개성 있는 제목과 풍부한 구성은 관객에게 한 걸음 낮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읽힌다.

일반권 기준 2만 원, 학생 1만 원인 입장권에 ‘원 프리 드링크(One free drink)’가 포함돼 있다.

예매는 포털사이트에서 공연 문턱을 검색하거나 구글 폼, 혹은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의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7월 5일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독립영화 개봉 앞두고 4일 시사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일 독립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사진〉 개봉을 앞두고 오는 7월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극장에서 전야제를 연다고 밝혔다. 시사회를 겸한 전야제는 김희정 감독과 전석호 배우의 무대 인사로 시작된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광주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명지’와 사고로 동생을 잃은 ‘지은’, 단짝 친구와 이별한 ‘해수’가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위로의 과정을 담고 있다.

영화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희정 감독과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실제 거주 공간인 광주를 중심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한편 영화는 오는 7월 5일 전국 동시 개봉될 예정이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에서 제작지원을 했던 독립영화가 우수한 작품성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다른 지역 영화에도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며 “광주의 모습과 배경을 통해 이루어진 스토리가 전국에 개봉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 영화의 가능성을 고취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9일 김호석 작가 특별 강연

수묵화를 모티브로 전통 한지의 중요성과 특징을 조명해보는 강의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김호석: 검은 먹, 한 점’의 연계 행사로 오는 29일(오전 10시) 작가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수묵화의 재료에 대한 논의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에서 김호석 작가는 한지를 중심으로 전통 한지의 특징을 조명할 예정이다.

“재료를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아마추어작가”라는 신념으로 작업해온 김 작가는 그동안 수묵화 재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40여 년간 수묵화의 재료인 전통 한지를 연구했으며 전통 한지를 사용해 작품 활동을 펼쳐온 것. 특히 2019년에는 ‘한국의 전통 한지-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지는 한지가 아니다’(김호석, 박후근, 정재민, 임현아 공저)를 출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석 작가는 이번 강의에서 “전통 한지의 원형이 무엇인지, 전통 한지 재현이 현재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할 계획”이라며 “전통 한지 재현을 위한 과정 등 전통 한지와 한국 수묵화 재료에 대해서도 소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농포집’ 완역…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한국학호남진흥원, 29일 진주향교

농포 정문부(1565~1624)는 기축옥사부터 이괄의 난 등 역사의 변곡점인 임진왜란 때 맹활약한 선비다. ‘농포집’은 정문부의 문학, 사상, 철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풍부한 자료다.

‘농포집’ 완역 기념으로 제5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호남문헌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1시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를 진주향교에서 개최한다.

‘남쪽에는 이순신, 북쪽에는 정문부’라고 할 정도로 정문부는 임란 때 맹활약했다.

총 2부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농포집’을 통해 농포 정문부의 학문과 임진왜란 위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1부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나상필의 사회로 오보라(고려대)의 ‘농포 정문부의 시세계’, 김만호(광주전남연구원)의 ‘임진왜란 시기 함경도 지역의 사회상’, 김재천(부경대)의 ‘북관대첩 중 정문부의 행적과 인적교류’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종합토론에는이상필(경상국립대학교)을 좌장으로 박희인(고려대학교), 장준호(해군사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농포집’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천득염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멸실 위기에 처한 호남지역의 민간기록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성과를 집적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됐다”며 “호남진흥원은 앞으로도 호남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